

신산업발전 민관협의회 개최 항공우주분야의 신 비전 제시

통상산업부는 중형항공기 및 고등훈련기(KTX) 개발등 전략사업을 통해 국내 항공기 산업을 오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이내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항공산업분야)에서 '항공기 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면서 '오는 2000년대초까지 중형항공기, 설계·제작·시험평가등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항공우주공업 과장은 중형항공기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인 중·소형 항공기 생산·수출국으로 도약하고 F16전투기 조립·생산기술 및 시설 등을 활용해 고등훈련기 개발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엔진·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도 본격적

으로 나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하고 부품 기체부문의 국산화율도 현재의 40%에서 2005년에는 90% 수준으로 높ی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효율적인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경남 사천시 일대에 1백만평 규모의 부품·소재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업체와 인접해 있는 사천 창원동의 지역에는 산·학·연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무성 삼성항공 대표이사등 산업계 인사와 노오현 서울대교수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한편 13일 우주산업에 대한 민관협력협의회에서 정부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 오는 2000년까지 위성체 부품의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2005년에는 독자위성 운영국가로 진입시키는 등 최첨단 산업인 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3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수직, 수평적 전문화및 계열화 추진을 통한 효율적 생산체제 구축, 전자·자동차 등 타산업과의 협력 유도,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지원, 중·대형 위성개발 기술확보, 국제 우주산업 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지원 등 5대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오는 2000년에 1천8백억달러 규모로 늘어나고 국내시장 규모도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X-1 조립공장 기공 대우중공업, 99년이후 양산

대우중공업은 지난 11월 7일 독자개발한 KTX-1 조립공장 기공식을 거행했다. 모두 7백원을 투입, 98년 완공될 KTX-1 조립공장은 약 4만평의 대지에 모두 8,800여평의 조립공장과 기능시험장, 9개동의 부대건물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인근 공군비행장과 연계하여 시험비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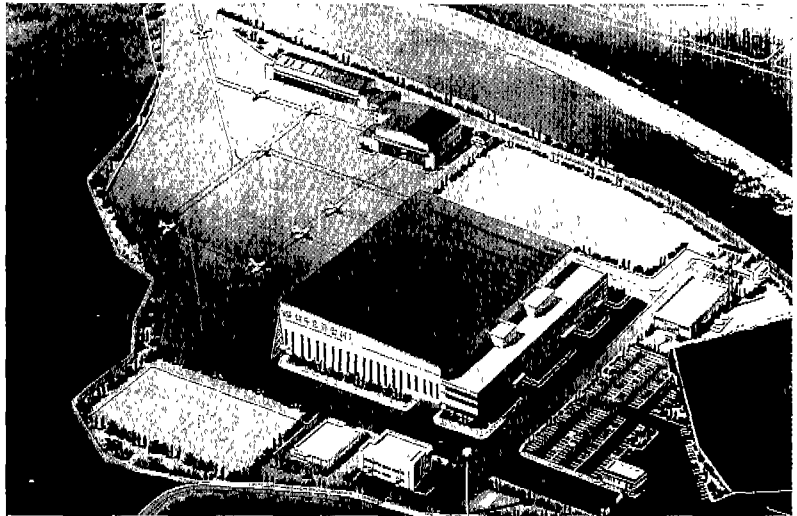
동 사는 지난 94년 공장부지를 확보한 이래 금년 10월까지 기초 토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모두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사는 KTX-1의 생산에 약 50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99년이후 양산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봉

희 사장을 비롯하여 500여명의 관련인사가 참석했다.

KTX-1은 한국공군의 기본훈련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88년부터 개발에 착수, 현재까지 550회의 시험비행을 거쳤고 꾸준한 성능개량으로 4호기를 제작하였으며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시제기(5호기)를 제작할 예정이다.



KTX-1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 최초로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美 차세대전투기사업, 록히드, 보잉으로 압축

미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JSF)의 최종 경쟁사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선정됨으로써 미국 방위산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1월 17일 록히드 마틴과 보잉을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 제25기회사로 결정,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 방위산업의 한 축을 형성했던 맥도널더글라스(MDC)가 탈락하고 대신 30년대 이후 군용기 제작에서 완전히

멀어졌던 보잉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번 경쟁에서 패배한 MDC는 최근들어 민간 여객기 부문의 부진에다 군수용마저 배제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 동 사는 전체 매출의 60%이상을 군납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JSF사업 이후에는 전투기 생산에 관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보잉은 JSF 시제품 생산회사로 성공함으로써 종합방위산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JSF사업은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로 2001년에 최종 계약자가 선정되며 총 사업비는 2,1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에어버스, 보잉수주전서 승리 US 에어에 400대 공급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보잉과의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US 에어 민항기 판매로는 최대규모인 400대에 이르는 여객기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사는 이밖에 에미레이트에 23대의 A-200 판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두 거래는 미국의 보잉사와 맥도널더글라스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것이다.

US에어와의 이번 대형 계약에는 120대의 A319, A320, A321기와 이후에 추가로 체결될 120대와 160대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다양한 기종들의 배분은 최종 인도 일정을 결정할 때의 시장상황에



US에어는 오는 97년부터 에어버스를 운항할 것이다.

의해 변동될 것이다.

최초 6대의 항공기 인도는 97년으로 계획중이고, 98년에 22대, 99년에 29대, 2000년에 37대가 각각 인도될 예정에 있다. 이 후에는 2004년에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48대가 인도될 것이다. 옵션에 대한 최종 일정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엔진도 아직 미정이나 곧 업체들과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US에어 측은 밝혔다. 에어버스의 중형항공기로 통일시키려는 등 항공사의 결정은 항공기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00대의 고시 가격은 120억불에 달하는데 양측 모두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에어버스사가 북아메리카에서 보잉, 맥도널더글라스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에서 최초로 A330-200기를 주문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A300, A310을 교체하기 위해 최초 16대와 옵션 7대를 주문하였다. 인도는 99년 1월부터 2002년 중반까지 이루어지며 엔진은 아직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대우주항공, MD95-50개발 참여 125석급 중형기

현대우주항공이 미국 맥도널더글라스(MD)사의 MD95-50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현대우주항공은 MD사로부터 내년부터 시작되는 125인승급 중형항공기 MD95-50의 개발에 참여, 날개와 기타 주요 부분품 개발 공급의뢰를 받고 금명

간 정식계약을 맺기로 했다.

등 사는 이미 MD사와 100인승급 중형항공기인 MD95-30의 날개를 제작공급기로 계약을 맺고 충남 서산시에 23만평의 부지를 확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항공기제작공장을 건설중이다.

한편 정몽구 현대그룹회장은 하얏트호텔에서 존 맥도널 MD사 회장과 만나 공동개발 및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에어버스, A3XX 가격제시 Trent900엔진 옵션

유럽의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는 보잉사가 제시하고 있는 747-600X기와 같은 운항거리를 갖는 550인승 A3XX기의 가격을 2억달러 이하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버스사는 보잉사의 747기 개량형의 인도 일정 보다 늦은 2003년에 인도하는 조건을 수락하기를 바라며 세계의 주요 항공사들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에어버스사는 4개의 엔진을 탑재할 A3XX 기에 지정된 Trent900 엔진을 제작하는 롤스로이스

사와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추력 80,000lb의 Trent900은 보잉 777기의 엔진으로 사용되는 Trent800의 개량형이다. 동 엔진은 추력 95,000lb의 더 큰 Trent800과 주요 구조와 팬, 부속품, 드레싱즈(dressings)가 같으나,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더 높은 바이패스비를 갖는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다.

에어버스의 간부는 동 사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플랫엔취트니사와도 GP7000형에 관련하여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GP7000 시리즈 엔진은 747 스트레치기를 위해 개발되고 있으나 추력 78,000급의 동 엔진은 A3XX 기에 사용될 수 있다.

日, 747X 개발사업 위해 자금마련

일본의 항공우주 산업계는 '97년에 계획된 미국 보잉사의 747-500/600X 개량형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9천3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3대 제조업체들(후지, 가와사키, 미쯔비시 중공업)은 777에 대해 동의 한 바 있는 공급자 제휴 방식(supplier-partner-type)으로 합의를 보기위해 보잉사와 교섭중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제시된 747-500/600X 계획에서 15-20%의 지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은 두 가지 747기 확장형에 사용될 기존의 것보

다 큰 날개의 개발에 집중적으로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지원아래 일본의 산업계가 747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적 판매 전망에 있어서 중대한 일로 비춰지고 있다. 일본항공(JAL), 그리고 나중에는 All Nippon Airways까지도 잠재적 구매자로 예상된다.



일본은 747X의 날개 제작과 함께 777사업에서의 지분은 확대할 계획이다.

일 통산성(MITI)은 동 계획의 자금지원을 위해 최초 6억엔의 예산을 상정했다. 아울러 97억엔의 추가 용자를 일본 개발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통산성은 이 외에도 777기 개발 사업과 미국 GE사와의 CF34-8C 확장형 엔진 계획을 위해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